

최연의 산 이야기 <19> 황악산 2

사명의 국난 극복 의지 직지사서 영글었구나



사명대사가 입산 출가하여 머리를 깎았던 사명각. 안에 사명대사의 진영이 모셔져 있다.

황악산의 북쪽 기슭인 물란리에 은자(隱者)로서의 벽계(碧溪) 스님이 있었다면 남쪽 기슭인 직지사에는 입진왜란의 승장 사명대사(西溟大師)가 있었다.

직지사(直指寺)는 천년 고찰로 신라 눌지왕 2년(418년)에 아도화상(阿道和尚)이 창건했다고 전해진다. 아도화상이 선산의 도리사(桃李寺)를 창건하고 멀리 서쪽의 산 하나를 가리키며 "저 산 아래도 좋은 절터가 있다"고 했는데 그 산이 황악산이고 그 터에 세운 절이 직지사로서 아도 스님이 곧게 가리켰다고 해서 직지사라는 이름이 생겨났다고 한다.

직지사는 이곳에 주석하였던 능여대사(能如大師)가 고려 태조에게 도움을 준 보답으로 태조19년(936년)에 사세를 크게 키우게 된다. 견훤(甄萱)이 서라벌을 함락하고 경애왕을 살해하자 이를 구하려 간 왕건이 오히려 팔공산 전투에서 패배하여 부하 신승겸(申崇謙)이 임금 옷을 대신 입고 도망쳐 죽음으로써 구사일생 목숨을 부지한 왕건(王健)이 직지사에 사함을 보내 묘책을 물어보니 능여대사가 하루 밤 사이에 삼은 짚신 2천 켤레를 왕건에게 전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짚신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다. 다만 능여대사의 도움으로 곤경에서 벗어나서 후백제를 물리치고 통일의를 완수할 수 있었다. 황악산에서 흘러내려 직지사 경내를 휘돌아 나가는 계곡을 능여대사 이름을 따서 능여계곡이라고 한다.

그 이후 조선조에 가서 사세가 기울어졌다. 승병장 사명

대사가 출가한 사찰이라고 왜병들의 혹독한 보복을 받았기 때문이다. 경남 밀양에서 태어난 사명대사는 신묵(信默) 스님을 은사로 직지사로 출가하였다. 18세에 승과(僧科)에 합격하고 30세에 직지사 주지가 되고 32세 때는 당시 선종(禪宗)의 수사찰(首刹)이었던 봉은사(奉恩寺)의 주지로 천거 받았으나 이를 사양하고 수행에만 전념하기로 하고 묘향산으로 서산대사(西山大師)를 찾아가 그의 제자가 되었다.

35세 때 금강산 보덕암에서 3년간 머물다가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거쳐 43세에 충북 옥천 상동암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 47세에 다시 금강산에 들어가 유점사에 머물렀는데 49세 되는 해에 입진왜란이 일어났는데, 분연히 승병을 일으켜 금강산 일대와 강원도 여러 고을의 백성들을 구했다.

전래 초기부터 이어져 내려온 호국불교의 전통이 사명대사가 이제 그 맥을 잇게끔 요구하였는데 아무리 민족과 백성을 위한 일이라고는 하나 살생이 수반된 일이라 수행자로서는 감내하기 힘든 희생이었을 것이다. 하여튼 황악산은 사명대사라는 결출한 명인(名人)을 배출하여 도탄에 빠진 백성들을 살릴 수 있었다.

황악산은 백두대간에 위치하여 북쪽으로는 금강(鎭江) 상류 유역을 이루는 산줄기들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백두대간의 남쪽 즉 영남(嶺南)의 김천(金泉), 선산(善山), 성주(星州) 등 분지형(盆地形) 고을들을 부러놓았다. 이중

에서도 백두대간의 추풍령 아래 첫 고을인 김천은 삼산(三山水)의 고장으로 조선시대 전국 5대 시장(市場) 중의 하나로 손꼽힐 만큼 교역의 중심지였다.

대덕산(大德山)에서 흘러내린 감천과 황악산에서 발원한 직지천이 김천 고을 끝자락 황산(黃山) 아래서 만나 김천의 '감문(甘文)'과 선산의 '해평(海浬)'을 적셔주고 금오산(金烏山)이 굽어보는 구미공단 초입에서 낙동강의 본줄기와 합류한다.

이러한 지형적인 조건을 고려하여 삼산(황악산, 대덕산, 금오산)과 이수(감천, 직지천)의 고장으로 불린다. 직지천은 물줄기가 짧아 이내 감천에 합류되지만 감천은 낙동강 수계(水界)에서 중요한 지류(支流)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감천 물줄기에 기대어 삼한시대의 조마국(曹馬國)과 감문국(甘文國)이 형성되었으며 감천(甘泉)의 모래가 무척이나 곱고 부드러워 전국 장사 씨름대회가 감천 모래사장에서 최초로 천막을 치고 열렸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실내체육관으로 장소가 옮겨지면서 이마저도 이전 과거의 추억 속에서만 회상될 뿐이다.

삼산(三山)이 부러놓은 김천, 선산 고을에는 유명한 삼사(三寺)가 있다. 황악산 품에 안겨 있는 직지사와 대덕산에서 갈라져 나온 수도산 자락의 청암사, 그리고 금오산의 산줄기가 해평들에서 찾아들고 김천 건너에 조그맣게 솟아난 냉산 아래 위치한 도리사가 그것이다.

■최연 (아시아문화연대 이사장)

* 유승도의 산에 산에 피는 꽃은

자연의 순환

벌들에게 무심했던 모양이다. 서양벌들이 벌통 입구에서 들어갈 틈을 노리며 날고 있는 것을 발견한 것이 4일 전이다. 입구 주변은 침략자와 수호하려는 자가 엮여 물고 찢으며 죽고 죽이는 전쟁터였다. 더위와 습기를 쫓기 위해 벌통 바닥을 들쭉거리며 공기 순환을 돕게 해준 것이 반팔 여름옷을 입기 시작할 때였으니 한 달도 채 되지 않았다. 그 사이 서너 번 양봉장을 둘러봤을까?

고임들을 얹고 벌통을 내렸으나 한 번 꼬이기 시작한 도둑벌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윙윙' 벌통 앞에서 날다가, 문지기 벌들이 집을 지키느라 분주한 가운데 생기는 빈 공간을 파고들어가는 서양벌들을 지켜볼 수만은 없었다. 막대기를 주워들고, 내려앉은 벌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을 노리거나 팔을 배에 가득 담고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놓치지 않고 꼭 눌러 죽이는 동작을 반복하며 벌통 앞에서 하루 한두 시간 씩을 보냈다. 참나무를 놓치지 않아야 하므로 성공률은 반에 반 정도여서 숙인 허리가 아플 때쯤이면 포기하고 돌아왔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오늘, 가만히 지켜보니 방에 나서고 있는 토종벌도 이미 벌통의 주인은 아닌 듯 보였다. 아니나 다를까? 벌통 하나를 집 안 마루로 옮겨 놓고 살펴보니 무리를 이루고 있어야 할 벌들이 송두리째 보이지 않았다. 여왕벌도 보이지 않았다. 꿀을 옮겨가기 위해 침입한 벌들만이 기어다니는 발집을 털어 밭에 버렸다. 주위의 두 통도

마찬가지였다. 남은 두 통 중 한 통도 군세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졌다. 결국 한 통만 남은 셈이다. (지난 해 20통이 넘었다. 가을에 말벌들의 침입을 막지 못해 다 해동기의 추위까지 견뎌 겨우 세 통만 이 봄을 맞았다. 올 봄엔 애벌레가 죽어가는 벌이 번져 분봉도 두 통을 받는 것에 그쳤다.)

무엇도 으스대거나 굽실거릴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력과 힘의 관계를 떠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서양벌은 어디서 날아왔을까? 가까운 곳에 누가 서양벌통을 갖다놓은 것일까? 지금은 아카시아도 철도 아니어서 누군가 슬쩍 일주일쯤 갖다놓았다가 가져가는 일이 벌어질 때도 아니다. 산을 하나 넘어서 날아온 것일까? 반경 2km까지가 활동범위라고 하니 산 너머에 있는 양봉장에서 날아온 것일 수도 있다.

가서 항의라도 할까? 내 벌통 값을 물어내라고 할까? 당장 서양벌 사육을 멈추라고 할까? 토종벌들도 무자비한 강도가 되어 내 벌통을 침략했으니 아래윗집에 가서 물어내라고 해야 할까? 날개 있는 것이 어딘들 못갈까? 내 벌통의 벌을 죽이고 꿀을 가져갔다고 해서 벌의 인자를 도둑으로 물 수 있을까? 무엇보다 증거가 없다. 내 벌통의 꿀을 가져갔다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까? 이랬거나 저랬거나, 13년 전 한 통 갖고 시작한 양봉이 아닌가? 마음의 흐름이 여기에 다다르자 일렁이던 가슴 속 물결이 가라앉으며 담담한 감정이 나를 채웠다. 또 다른 생각들이 꿈틀거리며 비어져 나온 것도 그쯤이었다.

사람들은 '자연' 하면 대부분 평화로운 정경들을 떠올린다. 평화롭게 살고픈 인간 욕망의 발현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는 약육강식의 세계를 얘기하며 자신의 정치논리나 부유함을 정당화 한다. 그러나 어쩌랴, 이 세상은 홀로 우뚝 선 강자도 없고 무런의 바다에 얽드린 약자도 없다. 가장 힘이 센 것처럼 보이는 인간도 얼마지나지 않아 약한 모습을 드러내는가하면,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균의 침입에 알아늘기 일쑤다. 나아가 죽음을 피할 수도 없다.

먹히는 것은 다른 생명의 삶을 영위해 준다. 먹히는 자가 없다면 먹는 자도 있을 수 없다. 힘이 센 것이 약한 것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강할수록 약한 것에 의지한다. 먹고 먹힘은 하나의 순환이다. 잡아먹는 존재는 곧 잡아먹힐 존재다.

무엇도 으스대거나 굽실거릴 것이 아니다. 인간 스스로 만들어내는 권력과 힘의 관계를 떠날 때에야 우리는 진정한 자신을 만나게 되지 않을까? 다행인 점은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다. 어쩌다 스쳐가는 사람이 지위와 돈과 권력을 내려놓은 사람들 좀도 모른다든 생각을 하면 은근히 기분이 좋아진다.

H/A 여름을 시원하게~~ 삼베 명석(카페트)로 cool하게~~

네츄럴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오직~ 현불사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삼베 수제 명석(카페트)
◇크기: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용도: 법당, 대청마루, 거실
◇가격: **330,000원**

■삼베의 기능 및 특성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드기, 곰팡이 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2.수분 흡수 및 발산(면이 42배)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6.전차파 차단 기능 (88% 차단)
7.적외선 흡수 기능, 핵,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삼베 매트(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삼베 매트(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용도(공용) : 요가용, 매트용,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상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주)현대에너지 2010년 최신행

농협농자 1년거치 7년분할상환
농협농자저장업체
(농수산물건조기, 저온냉장·냉동)

고객의 행복한 생활, 풍요로운 생활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책임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1용 ~ 20용까지

건조기(11세ban) 건조기(22세ban) 건조기(33세ban)

본사공장직영점. 0502-228-1510 HP.011-673-2623